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><div><div>더불어</div><div>민주당</div><div>정책위원회</div><div>2025.7.4.(금)</div><div>엠바고:</div><div>본회의통과직후</div></div></div> | <div>보도자료</div>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div>담당: 정책위원회</div> | <div>연락처: (02)6788-2606</div> |

## <민주당 20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성과>

- **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 등 추가지원금을 인상하여 지방 소비진작 효과 확대, 국비비율을 70~80%→75~90%로 조정하여 지방재정 부담경감**
- **영유아보육료 5% 인상, 발달장애인 지원 증액 등 민생예산도 확보**

- 민주당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주권정부가 편성한 2025년 제2회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심사과정에 임하였고 오늘(7월4일) 본회의에서 정부안 30.5조원에서 1.3조원 순증(증액 +2.4조원, △1.1조원)된 31.8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-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추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, 국비지원비율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.
  -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추가지원금을 비수도권 3만원,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.
  -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비율을 서울은 70%에서 75%로 하고, 그 외 지역은 80%에서 90%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.
-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.
  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를 5% 인상하였고,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249억원 증액하였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, 이번 추경에서 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.

- 콩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콩생산 과잉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연내 콩 2만톤을 추가 비축하는 사업 예산으로 1,021억원을 반영하였고,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이상 수온에 대응하는 장비를 확충한 예산으로 20억원 증액하였습니다.
- 올해 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 예산을 103억원 증액하였고,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산림 헬기 3대 임차할 수 있는 예산 159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.
-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추경안이 경제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.

2025. 7. 4.



**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,**  
**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**